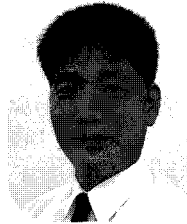




## 4월 지육시세는 3,05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지육단가가 3,500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매우 높은 가격임에는 틀림없지만, 양돈농가는 출하물량이 줄어들고 사료가격이 오르면서 돈가 오르는 것이 모두 이익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가격이 올해 평균 20% 인상될 경우 돼지 1두당 사료비가 22,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어 지육단가가 294원이 상승되어야 전년과 같은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양돈 농가로서는 더욱 더 긴축 경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3월의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당초 예상보다는 매우 높은 3,400원을 전후한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은 우리나라 양돈 역사상 최고의 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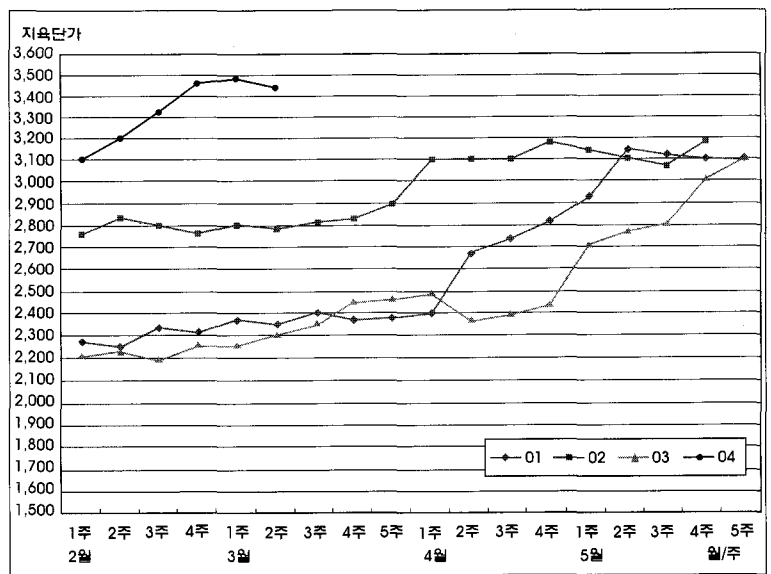
이러한 돈가의 고공 행진의 주요 원인은 소비 측면에서는 광우병과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소고기와 닭고기 소비가 줄고 그 자리를 돼지 갈비가 차지하면서 돼지 갈비가 부족하여 돈 주고도 못사는 일이 벌어졌고, 전지와 후지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일이 발생하면

서 가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또 오르는 등 거품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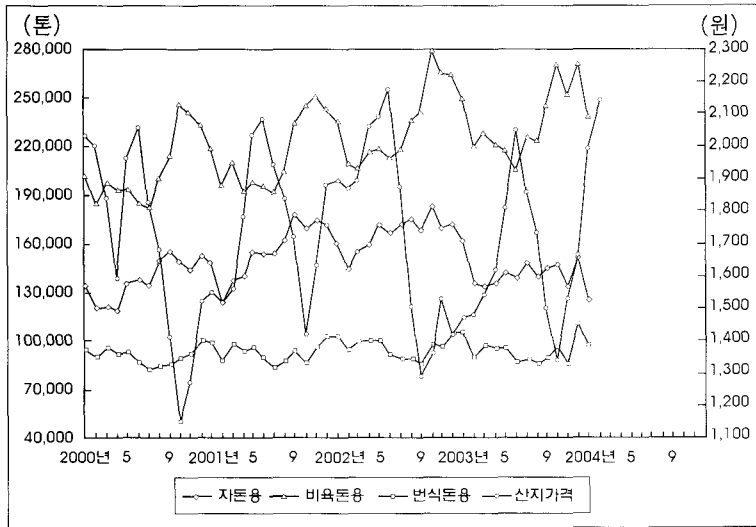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사료생산 동향을 보면 자돈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8.5%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비육돈 사료생산량이 2.5%감소, 모돈 사료 생산량이 4.1%감소, 총사료 생산량이 7.9%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돼지 사육두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은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전년 12월은 가수요가 발생하여 사료물량이 증가하였고, 금년 1월은 사료생산량이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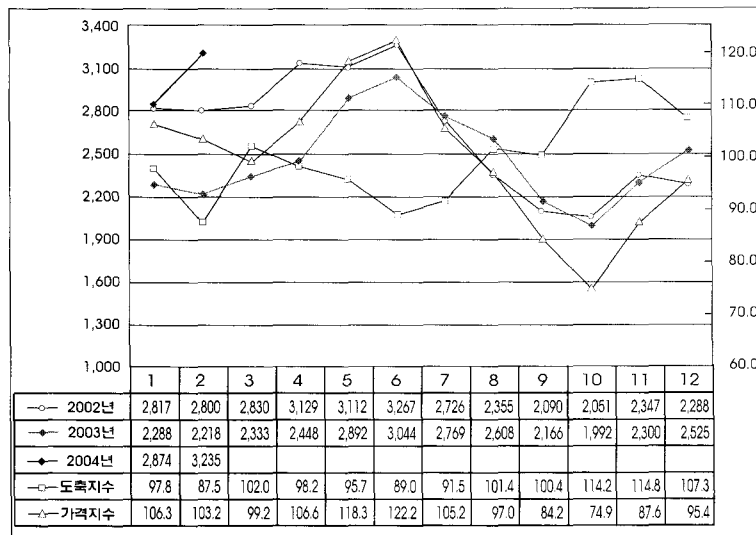
<그림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들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평균치로 비교하였다.

이렇게 출하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의 양돈의 번식성적 저하와 겨울철 호흡기질병과 설사병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돈이 죽어 버려 출하될 비육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료생산량이 몇 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하여 돼지 출하물량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출하물량의 부족 추세를 상

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하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대략 10% 감소하고, 비육물량 또한 2003년 10월 이후 외국으로 수출하여 국내 재고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어 버려 광우병과 조류독감으로 축발된 돼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야기시키면서 돼지가격을 사상 최고가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 이러한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족한 갈비와 전지 부위가 상당량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갈비와 전지 부분육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수급 불균형이 급속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2월에 매우 부족하였던 비육돈 출하물량도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월 1주차 지육단가 3,477원

/지육kg를 최고점으로 도매시장의 지육단가도 약간의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4년 4월의 시장 전망은 전년 대비 출하물량 5% 감소하고 소비량이 증가한 부분 10% 내외의 차이물량 15%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하면서 돼지가격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3,050원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